

미술작가의 최종학력, 출신학교 및 성별이 작품 판매 여부와 작품 판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 아트페어 마니프 시장을 중심으로

최단비¹, 정태영^{2*}, 신형덕²

¹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²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The Effects of Artists' Education Level, College of Graduation and Gender on Art Sales Possibility and Art Price: Focusing on MANIF Art Fair Market

Dan-Bi Choi¹, Taeyoung Chung^{2*} and Hyung-Deok Shin²

¹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Management,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²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요 약 국내외 미술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미술품 가격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미술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작가 프리미엄에 대한 실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본 연구는 국내 아트페어 중 2010년 마니프(MANIF)에 출품한 작가를 대상으로 작가 프리미엄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학력수준과 출신대학 그리고 성별이 출품 작품의 판매 여부와 작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변수로는 미술품의 장르, 규격, 그리고 미술은행 소장여부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상위권 대학 출신 작가가 하위권 대학 출신 작가에 비해 유의하게 판매 성사 실적과 판매 가격이 높았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판매 가격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상위권 대학 출신 작가는 작가 프리미엄을 갖는다는 것이고, 둘째, 예상과는 달리 작가의 최종학력은 작가의 프리미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별 효과가 부분적으로나마(판매 여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판매 가격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의 미술 시장에서는 남성 작가 프리미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rtists' education level, college of graduation, and gender have any influences on artists' premium which leads to higher sales possibility and art price using Art Fair Market data. We found that artists' education level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ither sales possibility or art price. But, artists' college of graduation which was measured by artists' undergraduate school level(high or low) has significant effects on both sales possibility and art price. Artists' gender also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rt price, although it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sales possibility. These results imply that artists' educational level or degree does not exert significant impacts on artists' premium, while the level of college that artists attended indee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rtists' premium. They also imply that gender plays a role in Korean art market.

Key Words : Art Fair, Artists' Premium, Sales Possibility, Art Price, Education level, College of Graduation, Gender

1. 서론

최근 들어 미술품 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 미술품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미술품

가격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고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1].

그런데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작품

*Corresponding Author : Taeyoung Chung(Hongik Univ.)

Tel: +82-2-320-1740 email: tychung@hongik.ac.kr

Received January 31, 2013

Revised (1st March 15, 2013, 2nd April 04, 2013)

Accepted April 11, 2013

특성과 작품판매특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측정치가 개발된 반면, 작가의 명성이 주된 지표인 작가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측정치가 이용되어 왔다[2]. 특히 작가의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작가의 학력, 출신학교, 유학경력 등이 작가의 인지도나 유명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견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최종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작가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순수예술은 지극히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보편적인 상식에도 불구하고 미술대학과 학력의 서열화가 존재하며, 이는 미술 작가의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최종학력과 출신학교가 미술품 판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작가의 성별이 미술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과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술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직장 내 승진이나 성과 평가 등에서 발견되는 성별 효과가 미술 분야에서도 발견되는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작가의 성별이 미술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2. 선행연구와 가설

2.1 미술품가격결정요인과 작가 프리미엄

미술품은 미적 가치와 함께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같이 자산으로서의 투자 가치를 함께 지닌 문화상품이다[3].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투자대상으로서의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박수근, 김환기 등 소위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들이 수십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자 미술품 가격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작품특성, 작품판매특성 및 작가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작품특성으로는 작품의 크기, 장르, 바탕소재, 재료 등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미술작품은 크기가 클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서양화가 한국화에 비해 고가이며, 유화와 아크릴 재료가 여타 재료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바탕소재에서는 캔버스나 하드보드가 다른 재료에 비해 고가로 거래되었다[4,5].

작품판매특성으로는 경매회사와 경매연도의 경기상황

등을 들 수 있는데, 대형 경매사를 통해 거래된 미술품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경매사에서 거래된 미술품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으며, 호경기에 거래된 미술품이 불경기에 거래된 미술품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6-8].

마지막으로 작가특성으로는 작가의 명성, 생존여부, 나이 등을 들 수 있는데, 작가의 명성은 작가의 화풍, 수상경력, 전시경력, 최종학력, 출신학교, 성별 등을 구성한다. 작고한 작가 또는 고령의 작가의 경우 고가로 거래될 확률이 크다. 이렇듯 작가의 화풍, 수상경력, 전시경력, 최종학력, 출신학교, 성별, 생존여부, 나이 등은 작가와 관련하여 미술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작가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다.

2.2 작가 프리미엄의 구성요소

지난 수년간 국내 미술시장에서는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오지호 등과 같은 작고한 작가의 작품이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작가 프리미엄을 누려왔다[9]. 이들은 한국 근대미술을 이끌어온 작가로서 전시활동 및 수상경력을 떠나 이들의 작품에는 일종의 시대적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작고한 작가나 대가, 원로작가, 또는 중견작가의 미술품을 주로 거래하는 대형 경매시장과 달리 신진작가를 포함한 다양한 작가의 미술품이 거래되고 있는 화랑이나 아트페어 시장에서는 작가의 명성 또는 인지도에 대한 사전정보가 충분하지 않다[10]. 이러한 미술품 시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2.2.1 작가의 학력수준과 출신학교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0년부터 2004년까지 25년 동안 고졸자에 비해 전문대 졸업자는 2.7~17.5%,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는 20.2~42.6%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문화예술 산업에서도 학력수준이 취업률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2,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력수준의 영향이 작가의 취업과 임금 뿐만 아니라 작품 판매 여부와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다. 제조업에서 제품의 경쟁력이 그 제품을 제조한 기업의 프리미엄을 반영하듯, 문화예술 산업의 상품인 작품의 경쟁력은 작가의 프리미엄을 반영할 것이며, 이것은 작품의 판매와 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작가의 최종학력수준은 작품 판매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작가의 최종학력수준은 작품 판매 가격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수준의 최종학력수준,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도 출신학교에 따라 취업확률과 임금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하위권 대학 졸업생의 경우 상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첫 일자리 임금이 12~17% 정도 낮다[14]. 상위권 대학은 하위권 대학보다 비교적 전통이 길며 졸업생의 수가 많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 또한 상위권 대학 출신의 졸업자가 하위권 대학 출신의 졸업자보다 넓고 깊다.

미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미술품의 가격과 미술품 구매 선호도는 해당 작가의 출신학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작가들이 미술시장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 출신 작가들은 원하는 미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예술 전문학교에서 교육받음으로써 특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15,16]. 이러한 요인들은 미술 시장에서 작가 프리미엄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곧 작품의 판매와 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작가의 출신학교수준은 작품 판매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작가의 출신학교수준은 작품 판매 가격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1 작가의 성별

2010년 현재 15세에서 64세인 취업가능 인구 중에서 남성의 취업비율은 73.9%인 반면 여성의 취업비율은 52.8%에 불과하였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3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17]. 우리나라의 성별 취업률 격차와 임금 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성차별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에서 찾고 있다. 첫째, 여성에 대한 교육과 직무훈련 등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남성에 비해 적어서 취업과 임금수준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육아와 가사일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의 기대수명이 짧아서 승진과 임금수준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 왔다. 둘째, 여성들은 임시직 등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경

우에도 여성 비율이 낮은 고학력 전문직종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가 작지만 여성 비율이 높은 단순 사무직 또는 서비스 직종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커서 결과적으로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18].

이러한 현상은 미술계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발견할 수 있다. 작가활동 역시 미술품을 제조하는 노동활동으로서 일반 노동시장과 크게 상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여성 미술작가들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 작가로서의 기대수명이 짧다. 또한 전업 작가로서 활동할 여건, 즉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듯 성별차이에 따른 작가 프리미엄의 차이는 잠재적 작품 구매자들이 여성작가의 작품에 대해 기대하는 금전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은 작품판매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작가의 성별(남자)과 작품 판매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6. 작가의 성별(남자)과 작품 판매 가격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3. 실증분석

3.1 자료

본 연구에서는 작가 프리미엄이 작품판매 및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 아트페어 중 하나인 마니프(MANIF)에 2010년에 작품을 출품한 131명의 작가 중 외국인과 외국대학을 졸업한 작가를 제외한 119명의 작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작가들이 출품한 미술품의 수는 총 663점이었으며 이 중 판매가 된 작품의 수는 214점이었다. 국내 아트페어 시장은 신진 작가의 진출이 용이하고 화랑과 경매에 비해 새로운 미술 작품들이 다수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의 작가들이 미술품 매매에 참여하는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이다. 또 다른 형태의 미술품 거래 시장으로는 화랑과 경매시장이 있는데, 화랑의 경우 다른 시장에 비해 거래액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거래의 불투명성이 높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어렵다. 또한 경매시장의 경우 작고한 유명 작가나 인지도가 높은 대가, 원로작가 또는 중견작가의 작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작가 프리미엄의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마니프는 기존의 화랑 중심 아트페어와 달리 작가의 개인적인 참가가 가능한 신진작가 중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트페어이다[19]. 화랑에 소속된 작가들의 경우 화랑 소속 자체가 작가 프리미엄을 구성하게 되지만,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신진작가의 경우 잠재적 구매자들은 작가의 특성에 관한 정보에 대해 더 민감하게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적절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3.2 모형 및 변수

본 연구는 마니프에 참가한 작가의 작품 판매 여부와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보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로 마니프에 출품된 모든 작품(663점)을 대상으로 작품 판매 여부를 종속변수로, 작품 판매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2단계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진 작품(214점)을 대상으로 작품 가격을 종속변수로,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작품 판매 여부와 판매가 이루어진 작품의 가격 두 가지이다. 로짓모형에서의 종속변수인 작품 판매 여부는 작품이 판매된 경우 '1'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으며, 회귀모형에서의 종속변수인 작품 가격은 실제 판매가격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가설에 따라 최종학력수준, 출신학교수준, 성별을 설정하였다. 최종학력수준으로서 대졸이상은 '1'로 고졸은 '0'으로 코딩하였다. 출신학교수준은 학사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출신대학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서울대와 홍익대를 상위권 대학으로 '1'로 코딩하고, 그 이외의 대학을 '0'으로 코딩하였다[20].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는 각각 1946년과 1949년에 미술대학을 설립하였는데 이들 대학은 한국 미술 발전을 주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의 경우 남성은 '1'로 여성은 '0'으로 코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미술품의 장르, 규격, 미술은행 소장 여부를 포함시켰다. 장르는 평면회화와 조각으로 분류하여 회화는 '1'로, 조각은 '0'으로 코딩하였다. 규격은 가로와 세로를 곱한 작품의 면적(cm²)의 자연로그값을 측정하였으며, 미술은행 소장 여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작가는 '1'로,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작가는 '0'으로 코딩하였다. 유명한 미술 기관에 작품이 소장된 작가는 그렇지 않은 작가에 비해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분석결과

3.3.1 상관관계분석

로짓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먼저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는 Table 1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다.

장르와 출신학교, 미술은행과 최종학력, 최종학력과 출신학교, 최종학력과 성별, 출신학교와 성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상관계수가 0.2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Basic Statistics

| | mean | standard deviation | number of observation |
|-----------------------|-------|--------------------|-----------------------|
| sales possibility | .32 | .468 | 663 |
| art price | 14.39 | .907 | 214 |
| size | 8.43 | 1.385 | 663 |
| genre | .79 | .407 | 663 |
| art bank | .60 | .490 | 663 |
| education level | .95 | .218 | 663 |
| college of graduation | .29 | .454 | 663 |
| gender | .56 | .497 | 663 |

[Table 2] Correlation Table

| | 1 | 2 | 3 | 4 | 5 | 6 | 7 | 8 |
|-----------------------|--------|-------|------|-------|--------|-------|-------|---|
| sales possibility | 1 | | | | | | | |
| art price | 1.0** | 1 | | | | | | |
| size | -.36** | .61** | 1 | | | | | |
| genre | .06 | -.11 | -.05 | 1 | | | | |
| art bank | .09* | .12+ | -.04 | .03 | 1 | | | |
| education level | -.02 | -.04 | -.02 | .02 | -.12** | 1 | | |
| college of graduation | .03 | .09 | .05 | -.10* | -.03 | .15** | 1 | |
| gender | -.05 | .22** | .01 | -.00 | -.06 | -.08* | .17** | 1 |

+ p<0.1, * p<0.05, ** p<0.01

3.3.2 로짓분석

작가 프리미엄과 작품 판매 여부에 대한 가설 1, 가설 3,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마니프에 출품된 663점의 작품에 대해 작품 판매 여부를 종속변수로, 최종학력, 출신학교, 성별을 독립변수로, 규격, 장르, 미술은행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3의 모델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 중에서는 상위권 출신학교가 작품 판매 여부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종학력과 성별은 작품 판매 여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학교의 경우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작가의 작품이 잘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신진 작가들의 경우 작가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

인 중 출신학교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최종학력과 성별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 여성 작가의 작품이 남성 작가의 작품에 비해 판매가 잘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작가의 작품이 남성 작가의 작품에 비해 저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Table 3] Logistic Regression on Sales Possibility

| | model 1 | model 2 | model 3 | model 4 | model 5 |
|---------------------------|----------|----------|----------|----------|----------|
| constant | 4.508** | 4.852** | 4.447** | 4.620** | 5.110** |
| size | -.708** | -.713 | -.714** | -.708** | -.723** |
| genre | .407+ | .418+ | .435+ | .420+ | .472+ |
| art bank | .388* | .373* | .397* | .375* | .358+ |
| education level | | -.323 | | | -.495 |
| college of graduation | | | .290 | | .373+ |
| gender | | | | -.209 | -.279 |
| Cox Snell R ² | .146 | .147 | .149 | .148 | .153 |
| Nagelkerke R ² | .204 | .205 | .207 | .206 | .213 |
| Chi-squared | 104.48** | 105.10** | 106.59** | 105.81** | 109.88** |

+ p<0.1, * p<0.05, ** p<0.01

통계변수 중에서는 작품의 규격(크기)이 판매 여부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작품의 크기가 작을수록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실내에 전시하기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르의 경우 평면회화가 조각보다 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각은 회화에 비해 운반, 보관 및 전시가 용이하지 않고 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미술은행 소장 여부도 작품 판매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로부터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작가로서의 자질 또는 장래성에 대해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3 회귀분석

작가 프리미엄과 작품 판매 가격에 대한 가설 2, 가설 4,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해 마니프에 출품된 663점의 작품 중 판매가 이루어진 214점의 작품을 표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작품 가격이고 독립변수는 최종학력, 출신학교, 성별이며 통제변수로는 규격, 장르, 미술은행이 포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Table 4의 모델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 중에서는 출신학교와 성별이, 통제변수 중에서는 규격과 미술은행이 작품 가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학교의 경우 상위권

대학(서울대, 홍익대)을 졸업한 작가가 작품이 하위권 대학 출신 작가의 작품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반면, 작가의 최종학력은 작품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작가의 작품은 여성작가의 작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규격이 1% 유의수준에서, 미술은행 소장여부는 5% 유의수준에서 작품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작품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작가의 작품이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작가의 작품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호당가격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작가의 경우 작가로서의 능력이 어느 정도 보증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장르는 작품 가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귀계수의 부호는 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회화에 비해 조소가 재료, 제작과정, 부피 등에서 비교적 크고 복잡할 뿐 아니라 원가 또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Art Price

| | model 1 | model 2 | model 3 | model 4 | model 5 |
|-------------------------|----------|----------|----------|----------|----------|
| constant | 10.474** | 10.449** | 10.179** | 10.274** | 10.027** |
| size | .500** | .500** | .516** | .496** | .509** |
| genre | -.072 | -.075 | .011 | -.071 | -.007 |
| art bank | .180+ | .181+ | .193+ | .216* | .226* |
| education level | | .027 | | | .025 |
| college of graduation | | | .307** | | .248* |
| gender | | | | .400** | .371** |
| adjusted R ² | .382 | .382 | .405 | .430 | .446 |
| F value | 43.301** | 32.327** | 35.604** | 39.491** | 27.737** |

+ p<0.1, * p<0.05, ** p<0.01

4.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트페어 마니프 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가 프리미엄과 관련된 미술품 가격결정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작가 프리미엄이 미술품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기존의 미술품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경매시장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서 작가 프리미엄의 형태도 대체로 저명한 원로작가 또는 중견작가의 명성으로 제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신진작가 등 비교

적 경력이 짧은 작가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작가의 명성 또는 인지도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 구매자들이 과연 작가의 최종학력이나, 출신학교, 성별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 탐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학력, 출신학교, 성별 등이 과연 작품 판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어 2단계에서는 동일한 변수들이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의 출신학교는 작품 판매 여부와 작품 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상위권 미술대학(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졸업자들이 아트페어 시장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작가의 최종학력은 작품 판매 여부와 작품 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고졸 작가의 작품이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작품에 비해 더 판매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 작가의 작품과 여성 작가의 작품의 판매에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남성 작가의 작품 가격은 여성 작가의 작품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기대노동수명이 길고 가사와 육아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한국의 근대적 미술 사조를 이끌어온 작가들이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미술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종학력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는 학력 자체로는 작가 프리미엄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학원 졸업까지 포함한 모델에서도 최종학력 변수는 아무런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심지어 상위권 미술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에도 작품 판매 여부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소위 ‘학력세탁’으로 일컬어지는 최종학력 업그레이드는 적어도 아트페어에서의 구매자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공적인 미술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상위권 대학 출신 작가가 프리미엄을 갖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당위성 여부를 떠나 미술 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려는 젊은 미술

학도에게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타 분야에 비해 창의성과 실험정신을 강조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학벌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미술 시장에서도 여전히 학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특정 작가가 높지 않은 학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판매 가격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마도 여성 작가의 작품이 남성 작가의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며 따라서 저가의 여성 작가의 작품이 고가의 남성 작가의 작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잘 판매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 역시 그 당위성 여부를 떠나 한국의 미술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성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작가들은 더욱 더 활발하고 실험적인 창작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술은행 소장 여부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작품 판매 여부와 가격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술은행 소장을 주요 변수로 설정한 작가 프리미엄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미술작가의 전시경력과 수상경력 또한 향후에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아트페어에 대해 1년간의 거래 자료로 한정 지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아트페어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C. Kwon, “A Study on the Price Indices and Determinants of Art Prices in Korea: Focusing on the Hedonic Price Model and a Quality Adjusted Price Index”, Ph.D. Thesis,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won University, pp. 1-132, 2007.
- [2] H. D. Shin, T. H. Kim, M. S. Kim and Y. S. Kim, “Artistic Value and Art Price: A Comparison between Auction and Non-auction Markets”,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13(10), pp. 4432-4439, 2012.
- [3] Y. H. Han, “Value Analysis of Art as an Investment”,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22, pp. 121-144, 2012.
- [4] J. W. Nam, “Price Determinants Of Art Price: Is It

Proportional To Size?”, Korean Economic Review, 56(2), pp. 139-161, 2008.

[5] J. W. Nam, “Price Determinants and Financial Returns in Korean Art Investment”, Korean Economic Review, 59(1), pp. 5-24, 2011.

[6] Helen Higgs and Andrew Worthington, “Financial Returns and Price Determinants in the Australian Art Market, 1973-2003”, The Economic Record, 81(253), pp. 113-123, 2005.
DOI: <http://dx.doi.org/10.1111/j.1475-4932.2005.00237.x>

[7] Andrew C. Worthington and Helen Higgs, “A Note on Financial Risk, Return and Asset Pricing in Australi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0(1), pp. 73-84, 2006.
DOI: <http://dx.doi.org/10.1007/s10824-005-9000-5>

[8] Andrew C. Worthington and Helen Higgs, “Australian Fine Art as an Alternative Investment”, Accounting Research Journal, 21(1), pp. 55-66, 2008.
DOI: <http://dx.doi.org/10.1108/10309610810891346>

[9] H. S. Cho and J. H. Kim, “The Price Determinants in Korean Art Auction Marke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7(4), pp. 73-95, 2009.

[10] Susanne Schönfeld and Andreas Reinstaller, “The Effects of Gallery and Artist Reputation on Prices in the Primary Market for Art: A Not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1(2), pp. 143-154, 2007.
DOI: <http://dx.doi.org/10.1007/s10824-007-9031-1>

[11] S. K. Lee, “The wage gap between the academic level”, Monthly Labor Review, 19, pp. 103-103, 2006.

[12] S. Heo,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Wage and Employment Types in Cultural Industries: Comparisons Between Manufacturing and Cultural Industries in Korea”,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2(5), pp. 2085-2108, 2009.

[13] J. H. Choi, Money Today(MT), 2011. 12. 25.

[14] K. Y. Lee and Y. H. Kim, “The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3(2), pp. 69-93, 2003.

[15] J. M. Lee, ArtMD(Midaepsi), 2007. 04. 19.

[16] E. J. Oh, Naeil News(naeil.com), 2011. 04. 26.

[17]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18] B. R. Bergmann, “Occupational Segregation, Wage and Profits When Employers Discriminate by Race and Sex”, Eastern Economic Journal, 1(1-2), pp. 103-110, 1974.

[19] B. S. Choi, “Korean Art Fair’s Present Status and Vision - A Comparative Study to Foreign Art Fair”,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6, 43-69, 2004.

[20] Y. B. Joen, “Looking at Korean Contemporary Art History since the 1960s: through Bourdieu’s Sociological Framework of Forms of ‘Capital’”, Journal of Art History, 23, pp. 397-445, 2009.

최 단 비(Danbi Choi)

[준회원]



- 2012년 2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관심분야>

문화예술경영, 마케팅, 예술이론

정 태 영(Taeyoung Chung)

[정회원]



- 1991년 8월 : 미시간대학교 경영학박사
- 1991년 9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국제경영, 국제재무, 재무관리

신 형 덕(Hyung-Deok Shin)

[정회원]



- 2003년 8월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
- 2003년 8월 ~ 2006년 5월 : 조지메이슨대학교 조교수
- 2006년 9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전략경영, 국제경영, 문화예술경영